크로아티아 선교동역자님께 주후 2013년 2/3월 선교소식지

**“...하나님의 나라는...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마가복음4장30~32절)**

뽀슈또반예! 유난히 추웠던 금번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금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로아티아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4백4십만의 크로아티아는 주민1천명 당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1명 미만인 국가이기도 합니다.선교지로 다시 부르신 주님의 섭리속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영적볼모지**인 이땅 크로아티아에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정착하기까지*...*)***현지 도착 후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입국한 외국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가서 여행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천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이곳을 방문하지만 모두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곳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서류를 구비하여 1년짜리 거주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거주할 주거지의 집주인과 함께 집문서와 공증받은 계약서를 갖고 경찰서에 출두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기까지 수많은 공증된 서류와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때로는 거의 하루를 경찰서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이러한 신고식을 치르고 **1년짜리 거주증**과 **노동허가서**를 받기까지 대략2개월 소요가 됩니다. 박선교사는 집계약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들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금주중 집주인과 계약서가 작성되면 곧 경찰서에 접수하게됩니다. 저는 이 기간동안 지난 번 기상악화로 인해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들을 계속해서 둘러보려 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실고)***코쁘리브니짜, 비엘로바르, 슬라띠나 지역은 2월말과 3월초에 걸쳐 답사스케쥴이 확정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거리에 관계없이신속히 방문하려 합니다. 입주 전까지 잠시 머물고 있는 선교관에서는 현지 지인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기도회, 주일집회 등 설교와 기도회인도요청을 받고 있지만,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상태이고 언어도 이전처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적쟎은 심적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저를 필요로하는 곳에는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러한 선교사역에 기도와 사랑으로 참여해 주시니 **행복한 선교동역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합니다.

도비젠야! 박찬신 & 김정애 (은우, 지우, 조이) 선교사 드림

**크로아티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제목**

**1. 거주증을 받는데에 지연됨이 없도록:** 완벽한 서류 준비와 담당자들의 신속한 처리

**2. 사역지답사 및 말씀전파 위해:** 코쁘리브니짜, 비엘로바르, 슬라띠나 지역 & 설교(현지어)준비

**3. 선교동원 위해:** 구유고권선교를 위한 헌신자들이 일어나도록

**4. 주파송교회:**파송교회를 속히 만나도록

**🡨**지역교회 성찬식 인도

복음주의 **🡪**

교단총회장: 다미르스폴랴리치



[](박찬신%20선교사%2002-23-2013)